

「안민가(安民歌)」의 시대상과 정치사상의 지향성 고찰

- 유불 · 화랑사상을 중심으로 -

윤 경 수

(전부산외대 교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이사)

- I. 머리말
- II. 8세기 경덕왕 시대 천체이변과
실정상(失政相)
- III. 안민가의 가의성(歌意性)
- IV. 안민가의 현실인식과 미래지향성
- V. 맺음말

<논문 요약>

「안민가」는 8세기 신라 35대 경덕왕 24년(745년) 충담사(忠談師)가 지은 신라 향가이다. 경덕왕 때는 천재이변(天災異變)이 자주 일어나 그중 궁중에 오악산신(五嶽山神)이 나타났다. 경덕왕은 불길한 징조를 해결하기 위해 귀정문(歸正門) 누상(樓上)에서 영복승(榮服僧, 위의(威儀)가 있는 중)을 만나기 위해 납시어 이때 충담(忠談)을 만났다. 일찍이 왕은 충담이 『찬기파랑가』(讚耆婆郎歌)를 지은 것을 상기시켜 어지러운 국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백성을 편안이 다스리는 「안민가」(安民歌)를 지으라고 명하였다. 충담은 당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유불사상의 치우침이 없이 화랑정신을 포함시켜 「안민가」(安民歌)를 지어 올렸다.

경덕왕은 「안민가」에서 자신의 국정운용의 결함을 지적하는 내용과 앞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제할 방법을 숨김없이 나타내 충담을 왕사(王師)로 삼으려고 했다. 왕은 신하들로부터 자신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형의 간언을 많이 들어온 터라 그런 무리의 신하를 싫어했다. 그런데 충담은 왕에게 실덕을 책(責)하고, 왕의 다스림을 유불사상과 신라고유의 화랑정신으로 나타내 충담을 위국충정의 고승(高僧)으로 보았다.

경덕왕 말년의 정치는 왕당파(王黨派)와 반왕당파의 대립이 세력이 격화돼 각축을 벌이는 구도를 지닌다. 여기서 충담은 중도좌파의 정치적 위상으로 처신해, 「안민가」는 경덕왕 당시의 비안민적 성향의 치국관과 정치사상이 발현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왕은 당시 청치상의 비리를 과감하게 청산하지 못하고 결국 그의 가계도 그의 태자 혜공왕 때 반왕당파에게 넘겨 왕통의 중지부를 찍고 마감했다. 「안민가」는 8세기 창작된 작품으로 오랜세월이 경과됐다. 그렇지만 「안민가」는 청담사가 당대의 시대상을 고승적(高僧的) 차원인 신라정신인 화랑으로 승화시켰기에 오늘에도 미래에도 위정자를 바르게 인도하는 문학사적인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충담사, 경덕왕, 왕당파, ,유교·불교·화랑사상, 신라 8세기.

I. 머리말

「안민가」는 8세기 신라 35대 경덕왕 때(745)에 충담사(忠談師)가 지은 신라 향가로서 일연(一然)의 『삼국유사』 권2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 조(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條)에 전하는 10구체 기요이다.

「안민가」의 창작 동기를 살펴보면 8세기 경덕왕 24년(765년)에 정치적 배경과 천재지변의 양상이 잘 반영돼 있다. 그 천재지변은 상서롭지 못한 구징(咎徵, 災殃의 徵兆)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경덕왕 24년 3월3일 오악산신(五嶽山神)의 출현이라 하겠다.

이런 재앙이 경덕왕 재위 말년에 발상했다는 것은 비록 은유적인 표현이라 하나 한말로써 정치가 원만하게 잘 다스려지지 않은데 있다. 경덕왕 24년은 왕의 재위기간을 마무리 짓는 단계로써 천체마저 이상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은 정치사상이 심히 혼란스러웠음을 의미한다. 경덕왕 24년(765년) 경주 궁정에는 오악산신(五嶽山神)이 나타날 정도로 나라는 불안정해 왕이 충담에게 이안민(理安民)의 노래를 지으라고 청했다. 충담은 경덕왕의 치국관과 정치사상을 솔직 대담하게 위국 충정으로써 시대상을 잘 반영해 「안민가」를 지었다. 「안민가」는 왕의 실정(失政)을 반성케 했으나 왕은 그를 불충의 신하로 대하지 않고 충간(忠諫)으로 받아들여 왕사(王師)로서 맞이하려 했다. 그러나 충담은 왕사를 사양했으니 스님 중에 스님으로서 고승임을 알 수 있다.

충담은 화랑의 별칭인 국선지도(國仙之徒)로서 연계된 승려였으니, 「안민가」는 화랑과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안민가」는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길을 인도한 치국안민의 정치사상이 노정된 향가라는 데 이의가 없을 줄 안다.

「안민가」는 충담의 올바른 인간상인 충정심이 담긴 노래로써 본고는 유불사상과 함께 화랑사상과도 연계로써 고찰해 보기로 한다.

Ⅱ. 8세기 경덕왕 시대 천체이변과 치국적 정치사상의 실정상(失政相)

1. 이일병현(二日並現)과 오악산신 출현의 의미

경덕왕 때는 두 번에 걸쳐 천체 이변 현상이 발생했는데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다. 첫 번째는 8세기 경덕왕 19년(760년) 4월 초에 이일병현(二日並現)의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돼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헨리 현상이라고, 또는 경덕왕 때 나라 안팎에 좋지 않은 조짐이 보인 것이라고 하는 학설도 있다. 설화적인 기록으로 두 해가 나타났다는 것은 『삼국유사』(三國遺事) 권 5 월명사도솔가(月明師兜率歌) 조에 보인다. 즉 이 기록에는 경덕왕 19년 경자년 4월 초에 두 해가 함께 나타나서 10여 일간 없어지지 않았다고 전한다. 왕은 일관(日官)의 청으로 청양루(靑陽樓)에서 연승(緣僧)인 월명사(月明師)를 만나 단(壇)을 열고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지으라 하여, 월명사가 『도솔가』 4구체를 지어 부르니 이변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도솔가』는 천체의 괴변을 없애기 위해 의식에서 불린 노래인 만큼 실제상의 일이 아니고 우회적이고 은유적인 설화상의 표현이다. “두 해가 함께 나타났다.”는 이 해는 곧 왕을 대응하는 친당파의 대립인 반왕대파의 출현을 나타낸 것으로 당시 두 파의 갈등으로 사회가 심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솔가』는 혼란을 조정하기 위해 산화공덕의 의식에서 불린 노래이니, 경덕왕이 반왕대파의 도전을 막기 위해 노력해 안정을 찾았다는 것을 이 노래서 읽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신라 35대 경덕왕 24년(765년) 3월3일에 오악산신(五嶽山神)이 경주 궁정 뜰에 나타난 내용이 『삼국유사』 충담사 표훈대덕조에 전한다. 이 설화의 서술구조를 순차적으로 간략하게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경덕왕의 재위는 24년간이었는데 이해 삼진날에 오악이나 삼신의 신들이 경주 궁정 뜰에 나타나 춤을 추었다.
- ② 왕은 음력3월3일 귀정문 누상에서 영복승을 맞고자 했다.
- ③ 위풍이 선결한 큰스님을 모셨으나 영복한 스님이 아니어서 돌려보냈다.
- ④ 경덕왕 24년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남산 삼화령 미륵세존께 차 공양을 올리고 장삼을 입고 앵통을 지고 남쪽에서 오는 충담을 맞았다.
- ⑤ 왕이 차를 청하자 차를 달여 드린다.
- ⑥ 『찬기과량가』에 고상한 뜻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왕은 충담에게 「안민가」를 지어 달라고 청해 칙명을 받들어 지어 바쳤다.¹⁾

위의 ③항의 큰스님(大德)과 ④항의 충담과의 인물됨이 대조적으로 기록돼 있다. 왕은 대덕을 중의 신분으로 내심의 덕보다는 외식(外飾) 외화(外華)의 치우치고 거만스런 행동이 행보에서 드러나 영복승으로서는 부적합한 인물로 물리쳤다. 충담은 왕이 그와 상대적인 인물로 보고 그를 맞이해 「안민가」를 지으라고 청한 것이다. 두 인물상은 『삼국유사』 권2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 조에서 그 인물됨을 구분 짓게 돼 이를 다음과 같이 도표로써 나타내 보기로 한다.

人物 記錄順	대덕(大德)	충담(忠談)
1	於是適有一大德	更有一僧
2	威儀鮮潔	被衲衣負櫻筒
3	徜徉而行	從南而行
4	左右望而引見之	王而見之
5	王曰非君所謂榮福也退之	邀致縷上

이 도표는 대덕과 충담사의 면모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경덕왕이 대덕보다는 충담사를 맞이한 직접적인 이유는 ‘威儀鮮潔’한 대덕(大德)보다는 혜진 장삼을 입고 앵통을 지고(‘被衲衣負櫻筒’) 온 데 순수하고 소박한 인물로 간주하고 치국안민의 대도를 구현하는 노래

1) 『삼국유사』 권2 기이 제2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에서 拔取

를 짓게 한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 경덕왕 때는 천체이변이 25차례나 자주 발생했는데²⁾ 그 중 이일병현(二日並現)과 오악산신의 출현은 불길한 징조를 예고한 것으로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을 줄 안다. 특히 오악산신이 궁정에 나타난 것은 처용랑 망해사조에 남산의 신이 어전에서 춤을 춘 것과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왕이) 포석정에 납시었더니 남산의 신이 나타나 어전에서 춤을 추었으나, 옆 사람들은 보지 못했고 왕만 보았다. … 이에 지신과 산신이 나라가 망할 춤을 추어 깨우쳐 준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상서로움이 나타났다고 해 탐탁이 점점 심해 나라가 끝내 망한 것이라 한다.³⁾

경덕왕 말년에 또 오악삼산신이 궁정출현에 대해 선행연구자들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대별되는 해석을 해 다소 엇갈리는 학설을 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삼국유사』 권2, 기이 제2 처용랑망해사조(處容郎望海寺條)에 신이 궁정에 나타난 현상은 나라가 망할 조짐을 예시한 것이라 보고, 오악삼산신이 출현 또한 부정적인 면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오악삼산신이 어떠한 신인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五嶽은 東·西·南·北·中央의 5방위에 있는 산을 말한다. 新羅의 五嶽은 土含山, 鷄籠山, 太白山, 智異山, 父嶽으로 主山이다. 三山은 奈歷(慶州), 骨水(永川), 穴禮(淸道)를 일컫는데, 이들 五嶽三山은 신라를 맡아 다스리는 핵심적인 지위다. 그런데 이들 신들이 殿庭에 나타난 것은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을 예시한 것이다. 신의 출현은 불길을 예고하는 것으로 흔히 믿어왔다.⁴⁾

오악삼산신이라 함은 호국하는 신들이다. 이들 신들이 궁정에 나타난 것은 나라의 서징(瑞徵)일까 그렇지 않으면 구징(咎徵)일까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물론 경덕왕 때의 역사적 상황에서는 불길한 재앙의 징

2)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 권9 경덕왕조

3) 『삼국유사』 권2, 기이 제2 처용랑망해사조(處容郎望海寺條)

4) 최철, 『향가의 문학적 연구』, 새문사, 1985, 159쪽.

조이니, 천변지이(天變地異)로 말미암은 구징(咎徵)에 해당한다. 경덕왕의 태자 혜공왕이 신하에게 사살된 것을 경덕왕 때 오악삼산신의 출현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경덕왕 때는 반왕당파인 신하들이 왕당파(친왕파)의 도전으로 나라가 심히 어지러웠기 때문이다. 이 반왕파와 왕왕파의 두 가지 용어는 역사학자인 이기백의 『신라정치사회사 연구』, 일조각, 1974)에서 처음으로 보이는 용어이며, 김수태는 『신라 중대 정치사연구』, 일조각, 1996)에서 이를 신라중대 신문왕-혜공왕-선덕왕의 시기(時期)로 확대시켰다.

이 두 가지 용어 중 신영명 교수는 왕당파는 “전제왕권의 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세력”이고 반왕당파는 “귀족연합의 사익을 추구하는 분권 세력”으로 파악했다.⁵⁾ 그리고 월명사와 충담사가 일단 왕의 부름에 응했다는 점에서 친왕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왕이 내린 상과 지위를 받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태도를 달리한다고 지적한 뒤 이들을 각각 중도우파와 중도좌파로 판별했다.⁶⁾ 따라서 충담사는 『찬기과랑가』에서 중도좌파에 속한 것으로 보이는 기과랑을 찬양한 점을 고려할 때⁷⁾ 그의 정치적 행적도 이와 비슷하게 행했던 점을 참고로 할 때 중도좌파의 성향이 짙다.

오악삼산신은 호국하는 산신들이다. 이들 신들이 궁정에 나타났다는 것은 신(神)이 지켜야 할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이나 왕은 자기자리를 반석처럼 지켜야 한다. 마치 그 자리를 지킴에는 북극성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북극성이 궤도를 벗어나면 못 별들이 방향을 잃어 우주의 질서는 지켜지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경덕왕의 태자인 혜공왕이 반왕당파인 내물왕계에게 사살된 것은 그 후유증이 존속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왕당파인 경덕왕이 태종무열왕계인

5) 신영명, 「안민가의 정치사상」, 『우리문학 연구』 제31집, 우리문학회, 2010, 10, 31, 77쪽.

6) 신영명, 위의 책, 80쪽.

7) 신영명, 「찬기과랑가의 상징체계와 경덕왕대 정치사」, 『국제어문』 43, 국제어문학회, 2008, 114~116쪽.

관계로 종언을 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덕왕은 불사에 치중해 부처의 공덕으로 천재지변의 재앙을 해결될 것이라 과신하고 무리하게 사찰 창건과 대종(大鐘)의 주조(鑄造)를 강행해 민생경제를 파탄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 그 중 너무나 잘 알려진 신라 경덕왕 때의 부왕인 성덕왕의 위업(偉業)을 추앙(推仰)하기 위해 구리 12만근을 들여 대종을 주조해 성덕대왕신종은 일명 봉덕사종, 에밀레종이라 이른다. 이 종은 종을 만들 때 아기를 시주해 끓는 쇳물에 넣었다는 애뜻한 전설이 있어 흔히 에밀레종이라고도 불려왔다.



성덕대왕 신종: 국립경주박물관 보관
출처:<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59758>

즉 이 종이 만들어진 사연(事緣)에 대해서는 봉덕사에서 종을 만드는 일이 계속 실패해 걱정이 많아. 그때 한 승려가 민가를 돌며 재물이나 쇠붙이를 보시 받으러 다녔다고 한다. 어린아이를 업고 있는 아낙을 만났다. 승려가 시

주를 청하자, 아낙은 집안이 가난해 시주할 것이 없으니 어린아이라도 가져가라고 농을 했다. 승려는 그냥 돌아갔다. 주종 작업에 계속 실패를 거듭하자, 아이를 바쳐야 종을 만들 수 있다는 계시가 있었다. 승려는 다시 그 아낙의 집을 찾아 아이를 데리고 와 펄펄 끓은 쇳물에 넣었다. 마침내 종이 완성됐는데, 종을 치면 그 아이의 원혼이 서러 그 종소리는 어미 때문에 죽어 ‘에밀레’ 소리가 난다고해 그 이름을 ‘에밀레’종이라고 『한국민속문학사전』(설화 편), 국립민속박물관)에 그 이야기가 전한다.

이와 같이 경덕왕은 불사에 치우쳐 백성들의 부역이 가중되고 경제난으로 굶주림에 지친 농민이 도적떼가 돼 땅을 버리고 마을을 떠

나는 경우가 발생했다, 더구나 귀족들에게는 자금을 부담케 하니 이들이 반감이 컸다. 경덕왕의 개혁정치는 완전히 실패했고. 그의 태자 혜공왕 재위 16년간 무려 5차례에 걸쳐 반란이 일어났다. 결국 내물왕의 10대손 김양상(金良相)의 반란으로 혜공왕이 살해되고 무열왕계는 단절되었다. 이로써 국운이 쇠퇴하는 신라 하대가 등장하게 돼 충담사의 표현대로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답지 못하고, 백성답지 못한 사회”가 시작됐다.

충담이 「안민가」에서 왕다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은 경덕왕이 왕답게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않았기에 충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왕당파인 경덕왕이 태종무열왕계가 반왕당 파인 내물왕계가 집권하는 빌미를 제공한 원인이 됐다. 따라서 경덕왕 때 이일병현과 오악삼산신이 신라의 수도인 경주 궁정 뜰에 나타났다는 것은 국정의 혼란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라 보면 될 것이다. 충담이 「안민가」를 지은 것은 “당시 신라백성들이 ‘안(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⁸⁾ 따라서 경덕왕의 나라 다스림에 치국관과 정치사상은 충담사가 당시 역사적 상황을 곧바로 제시한 「안민가」에서 잘 반영돼 있으므로 참고하면 올바르게 이해되리라 본다.

2. 경덕와 사찰 창건, 대종(大鐘) 주조로 친왕과 가계 종말

경덕왕 재위 24년간 재연재이가 무려 25차례나 발생했다고 『삼국사기』 권9 경덕왕 조에 보인다. 「안민가」는 부대설화로 볼 때 위민치국을 실현하기 위한 제의적 성격의 노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안민가」는 호국 신앙과 미륵신앙에 바탕을 둔 유불화랑 사상이 가미된 가요로 해석된다. 충담이 「안민가」를 지은 것은 경덕왕에 실정에 따른 것을 구제하기 위한 방도로 정사를 잘 하라는 충고로 볼 수 있다. 경덕왕의 시대상은 한

8) 서영교, 「『安民歌』 창작의 시대적 배경」 『우리文學研究』, 제33집, 우리문화회, 2011, 82쪽.

말로써 불안한 정국이였다. 경덕왕은 천은(天恩)을 입지 못하고 왕위에 오른 것이다. 고대에는 농본을 위주로 하고 살아가야 하므로 자연재이(自然災異)가 자주 발생하면 왕은 실덕으로 이어졌다. 사람들이 의식주 중 가장 우선시 되는 먹을거리는 생사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고로 백성은 민이식위천(民以食爲天. 백성은 먹는 것으로써 하늘을 삼는다)라 했다. 그런데 경덕왕은 자연재이가 자주발생하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인 민생문제를 최우선과제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외면하고 부처의 공덕에 의존해 무리한 불사에 힘썼으니 국정이 파탄지경을 유발시킨 것이다.

왜냐하면 경덕왕은 자연재이가 자주발생하면 수리시설로써 농경을 힘써야하는데 불교의 교리인 부처의 가호로 가뭄 현상을 해결하려고 했다. 종교는 사람을 바르게 올곧게 살아가라는 길잡이이지 위식주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왕이 종교교리에 도취되면 정사를 소홀하게 돼 결국 나라경제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조성한다. 예전에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던 시대이니 부처께 정성을 다 바치면 해결해 줄 것이라 믿는 이들이 많았다. 신자들은 불교교리를 끝이끝대로 믿으니, 낮이나 밤이나 잠을 자면 부처가 나타나는 꿈을 꾸게 돼 실성하는 사람도 발생하곤 했다. 종교도취로 부부간에 금이 가서 이혼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다. 이런 일은 필자가 1940년대에 이런 사람을 목격하고 어린 시절을 자랐기 때문에 솔직하게 소개한다. 종교는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일상생활에 힘써야지 부처만 믿어서는 병이 치유되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위정자는 종교를 종교 교리대로 열심히 믿되 살아가는 일에 전범을 보여야 하며 종교를 살아가는 일보다 우선시해서는 민생경제를 파탄시킨다. 요즘도 사람에 따라 종교에 도취된 사람을 보면 안타깝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종교는 사람들을 진리체계의 교훈으로 알고 바르게 살아가는 교리이므로 맹목적으로 도취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많은 종교 경전은 신화로써 미화시킨 이야기로 간주하면 되고 맹목적으로 믿으면 부작용이 발생해 가정의 삶도

어려움을 겪게 돼 파산지경에 이른다. 위정자인 왕이 종교를 맹목적으로 신봉하면 나라 경제는 파탄케 돼 그 해독됨을 경덕왕의 예로 보편될 것이다.

경덕왕은 종교를 어떻게 신봉했는가? 그는 한말로써 종교에 도취돼 부처를 잘 믿으면 부처님에 가호가 있을 것이라 믿고 석굴암이나 불국사를 창건하고 신종을 주조하는데 무리하게 힘을 기울여 민생 경제를 파탄시켰다.

석굴암은 경덕왕 10년(751) 김대성에 의해 시작돼 20여 년이 걸려 혜공왕 10년(774)에 완공됐으니, 국력이 소모되고 국론이 분열됐다. 또한 경덕왕은 대종(大鐘)을 만드는데 집착돼 754년에 주조된 황룡사 종 무게는 49만7천581근, 755년에는 분황사 약사여래상 무게가 30만6천700근, 부왕(父王) 성덕왕을 기리기 위해 12만근을 들어 ‘성덕대왕신종지명聖德大王神鐘之銘’이라 했느니,⁹⁾ 막대한 국비를 소모시켰다.

이와 같이 경덕왕 시절에 일으킨 사찰 창건 신종 주조는 불교에 도취돼 왕실에 대한 민심이반(民心離叛)을 가속화시킨 원인이 됐다

35대 경덕왕은 불교에 교리에 너무 몰입돼 그 여파는 경제위기로 내몰리어 귀족들이 부담이 커 이들의 반감을 샀다. 여기에 경덕왕은 『삼국유사』에서 “음경(陰莖)이 여덟 치(24cm)나 된다”고 언급했다는 것은 호색(好色)의 군주임을 비유한 것이다. 왕은 국사보다는 불교에 치우치고 궁녀와의 호색관계로 세월을 낭비했다. 결국 그 여파는 태자 혜공왕도 사망하고 태종무열왕계인 왕당파는 왕위를 내물왕계(奈勿王系)로 넘어가게 된 것이니, 경덕왕은 성실치 못한 왕으로 볼 수 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면 악을 미워하기를 악취를 싫어하듯이 하고 선을 좋아하기를 호색을 좋아하듯이 해야 한다. 그럼에도 경덕왕은 외본내말(外本內末) 식으로 국정을 운용했으니, 마침내 쟁민시탈(爭民施奪)이 발생해 왕통도 뒤바뀌고 가계도 종말을 고했다.

9) 『삼국유사』 제3권 제4 답상편

Ⅲ. 「안민가」의 가의성(歌意性)

1. 치국과 안민의 정치적 가의(歌意)

「안민가」는 경덕왕의 정으로 충담이 지은 10구체 향가이다. 충담이 지은 동기는 나라가 혼란해 이를 안정기조에서 나라를 잘 다스려 줄 것을 바라는 취지에 있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경덕왕 24년(785년) 3월3일에 경주 궁정에 오악산신이 나타났다고 했다. 이는 나라의 혼란함을 은유한 것이지만 왕은 이를 계기로 귀정문(歸正門) 다락 위에 올라 신하들에게 누가 영복승(榮服僧, 위의(威儀)가 있는 중)을 데려 오겠느냐고 말을 했다. 신하들은 왕의 명으로 위풍이 있는 한 대덕(大德)을 데려왔다. 왕은 자기가 바라는 영복승이 아니라고 돌려보냈다. 다음은 누더기 옷을 입고 앵통(櫻筒)을 진 다른 중이 남쪽으로부터 걸어오자, 왕이 그 중을 맞아, 이름을 물으니 충담이라고 했다.

일찍이 왕은 충담이 뜻이 깊은 『찬기과량사뇌가』(讚耆婆郎詞腦歌)>를 지은 승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차에 백성을 편안하게 할 노래를 지어달라고 충담에게 요청하자 충담이 곧 「안민가」를 지어 바쳤다. 「안민가」는 『삼



국유사』 권2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조에는 작품의 유래에 관한 배경설화와 향찰로 표기된 원문이 함께 전한다.

위의 『삼국유사』 권2 원문을 양주동의 현대해석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① 君隱父也 | 군(君)은 아버요, |
| ② 臣隱愛賜尸母史也 | 신(臣)은 사랑스런 어미며, |
| ③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 | 민(民)은 어린아이라고 하실 지면, |
| ④ 民是愛尸知古如 | 민(民)이 사랑을 알리로다. |
| ⑤ 窟理叱大盼生以支所音物生 | 꾸물거리며 살손 물생, |
| ⑥ 此盼喰惡支治良羅 | 이를 먹여 다스려져, |
| ⑦ 此地盼捨遺只於冬是去於丁爲尸知 |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려 할지면 |
| ⑧ 國惡支持以支知古如 | 나라 안이 유지될 줄 알리이다. |
| ⑨ 後句君如臣多支民隱如爲內尸等焉, | 아오, 군답게, 신답게, 민답게 할지면 |
| ⑩ 國惡太平恨音叱如 | 나라 안이 태평 하리이다. ¹⁰⁾ |

위의 가의의 기본 내용은 왕은 아버지로 신하는 어머니로, 백성은 어린아이라고 비유하고, 각기 자기 본분을 다하면 나라와 백성이 편안하다는 것이다. 이중에서 꾸물거리며 살손 물생은 (벌레같이)꾸물거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느리게 자꾸 움직인다는 것이니 백성의 삶의 형태를 가리키는 말이니 쉽이 없이 일하며 살아간다는 뜻이다. 충담이 군신만의 책임의식으로 지은 것은 왕이 국정운용을 잘못 다스린데 왕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권한 것으로 보면 된다. 「안민가」는 10구체 향가로서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단은 ①~④구, 제2단은 ⑤~⑧구, 제3단은 ⑨~⑩구이다.

「안민가」는 경덕왕이 실정으로 나라가 심히 혼란했음을 계기로 충담

10) 양주동, 『신증고가연구』, 일조각, 1965, 273~281쪽. 서재극, 『증보 신라향가의 어휘 연구』, 형설출판사, 1995, 21~25쪽. 김완진, 『향가해독법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73~75쪽. 황선엽, 「안민가해독을 위한 새로운 시도」 『한국문화』, 42,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8, 219쪽.

이 왕에게 치국안민으로 다스리라는 장치사상이 반영된 가요인만큼 그 삼단구성의 가의는 이안민적(理安民的)이다.



김다금의 「안민가」 노래
출처: chojus.tistory.com/4480

「안민가」는 오늘에 이르러 김다금(신라대학교 국악학원장, 향가연구가)이 현대적으로 새롭게 작사해 효사상을 더욱 발전시킨 노래로서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과 감명을 받게 한다. 「안민가」는 오늘에 이르러 김다금(신라대학교 국악학원장, 향가연구가)이 현대적으로 작사해 효사상을 더욱 발전시킨 노래는 듣는 이로 하여금 감명을 받게 한다.

2. 「안민가」의 교도시가적(敎導詩歌的) 성격

「안민가」의 기본 가의의 내용은 왕은 아버지요, 신하는 어머니요, 백성은 어린아이라고 비유하고, 각기 자기 본분을 다하면 나라와 백성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안민가」는 백상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이므로 충담이 왕의 실덕을 깨우치기 위해 왕과 신하 백성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 “君君 臣臣 父父 子子”가 본분을 다하는 내용으로 지어 바쳤다. 왕은 「안민가」 가의가 신하의 위민충정(爲民忠情)으로 지었던 관계로 충담을 왕사(王師)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충담은 사양했다. 충담은 당시 왕과 신하가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해 백성들이 곤궁한 생활에서 살아가게 돼 왕사를 거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왕과 신하는 백성들 나이가 어린 친자와 같이 보살피는 부모가 돼야 위정자라고 할 수 있는데, 왕의 경우 불교교리에만 치우치고 궁녀들과 호색함으로써 세월을 보냈다. 충담은 경덕왕을 세속에 젖은 비위정자로 간주하고 왕사로서 봉하고자 한 것을 단호히 물리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원래 「안민가」의 사상은 백성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다스리는 내용이 담겨 있기에 민본주의(民本主義)가 자리를 잡고 있다.¹¹⁾ 그래서 양주동은 「안민가」, 조지훈은 『백성가』, 최철은 『이안민가』(理安民歌)라고 이름 했다. 「안민가」는 경덕왕 당시 왕이 비안민적으로 나라를 다스린 사회였다. 충담은 당시 사회를 구하기 위해 왕의 청을 받아들여 유교의 왕도사상과¹²⁾ 불교의 왕론법(王論法) 사상의 기반을 두고¹³⁾ 창작한 것이다. 때문에 「안민가」는 전제왕권시대의 교도시가(教導詩歌)인 색채를 띤 신라가요이다¹⁴⁾ 한편 「안민가」는 유불의 결합으로 보는 견해¹⁵⁾ 또 주술로 보는 견해¹⁶⁾ 등으로 대별된다. 따라서 「안민가」는 충담이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불교의 사상만이 아닌 유교교리인 군군신신(君君臣臣) 부부자자(父子子子)와 혼용되게 지었다. 충담은 화랑과 출신의 국선지도(國仙之徒)였으니, 구국의 스님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忠談師는 派를 超越한 直言의 居士였다. 派를 超越했다는 말은 그가 곧 中立의 位置를 堅持한 인물이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中立의 이라면 일단 政治社會에 加擔했거나 혹은 加擔해 있거나 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忠談인즉은 前身이 政治와는 無關한 國仙之徒였고 또 安民歌를 지을 때만 하더라도 脫俗의 僧侶였다.

충담사는 불교신자로서 구국의 일념으로 경덕왕을 충간하기 위해 유불사상을 초월해 위국충성의 열정으로 「안민가」를 지었다. 뿐더러 충담

-
- 11)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5, 241쪽.
 12) 양주동, 「논어와 국문학」, 『논어』, 현암사 1966, 393~394쪽.
 김중우, 『향가문학연구』, 二友出版社, 1983, 176~179쪽.
 금기창, 『한국시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2. 변종현, 「안민가」 황폐강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향가문학연구』, 일지사, 1993. 446~449쪽
 13) 김운학, 『신라불교문학연구』, 현암사, 1977, 239쪽. 윤영옥, 신라가요의 연구 형설출판사, 1991, 234 ~ 237쪽. 이도흙, 「안민가와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화엄사상」, 『畿甸語文學』, 3 수원대학교국어국문 학회, 1988, 211~215쪽.
 14) 김승찬, 『한국상고문학론』, 새문사, 1987, 71~72쪽.
 15) 김승찬, 위의 책, 138쪽.
 16) 임기중,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二友出版社, 1981, 295~297쪽.

은 『삼국유사』 기록에 월명사가 승려였지만 국선지도(國仙之道)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충담사도 월명사와 같은 길을 걷는 승려이었다. 국선(國仙)은 화랑의 별칭이며 화판(花判)·선랑(仙郎)·국선(國仙)·풍월주(風月主)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충담사는 화랑도의 정신과 함께 유불의 사상을 초월한 우국충정의 발로로 당대의 시대상을 잘 감안했다. 그 시대상은 왕이 왕답지 못하고 신하 또한 신화답지 못해 충담사가 「안민가」에서 군(君)=부(父), 신(臣)=모(母), 민(民)=자(子)의 등식관계로 나타냈다. 마치 경덕왕 때 사회상은 왕은 왕대로 왕권강화에만 힘쓰고 신하는 신하대로 권력쟁취에만 힘써 파벌조성에 급급했고, 귀족은 귀족대로 자기 실속만 차리고 백성들은 그 소용들이 속에서 고달프게 살아야만 했다. 말하자면 군·신·민 관계는 유기적인 유대에서 살지 못하고 괴리적인 생활로써 일관해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충담사는 경덕왕의 삶의 양상을 개선하기 위해 「안민가」는 3단으로 구성했다. 제1단(제1구~제4구)에서 의도한 바는 위정자가 백성을 어린 이와 같이 보호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제2단은 제5구~제8구에서 백성의 삶을 그린 것인데 이들을 잘 다스리면 백성들이 알아서 잘 순응한다는 것이다. 제3단은 제9구~제10구로써 결사인데 군신민이 각자 자기의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태평성대를 맞이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경덕왕 때는 비안민적 시대상이라 「안민가」의 제1단, 제2단, 제3단으로 각각 나눠 설명해야 되나, 이에 상세한 내력은 필자의 저서에서 상세하게 밝혔다. 이를 참고하면 경덕왕의 치국관과 정치풍경의 사상적 배경은 소상하게 밝혀지리라 믿는다.¹⁷⁾ 이에 따라 「안민가」는 경덕왕의 실정(失政)을 만회(挽回)하기 위해 지은 교도시가적(教導詩歌的) 성격을 띤 노래라고 할 수 있다.

17) 尹敬洙, 「2安民歌의 製作 動機와 그 歌意」, 『鄉歌·麗謠의 現代性研究』, 集文堂, 1993, 340~343 쪽.

V. 「안민가」의 현실인식과 미래지향성

1. 「안민가」와 자연재이와 불경의 상응관계

경덕왕 때 충단사가 지은 「안민가」는 자연재이(自然災異)가 자주 일어나 왕이 부처의 가호로 이를 진호(鎮護)하려고 불교를 신봉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안민가」는 충단이 현실적 상황을 너무나 잘 인지하고 지은 노래이기에 현실 인식과 미래지향성을 띠고 있다. 경덕왕은 전제왕권 강화로 신와와의 갈등이 야기된 원인이 됐다. 왜냐하면 자연재이가 연달아 일어나고 성적 인 결함으로 심적 갈등이 야기됐다. 이로 인해 왕은 독실한 불교신자로서 군림(君臨)하게 된 것이라 본다. 더구나 고대에서 자연재이는 자연현상이라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재앙이었다. 고대인의 사유는 자연현상이 인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 믿어왔다. 경덕왕이 불교의 심취된 것은 자연재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신화간의 갈등양상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대인은 만물에 정령이 있다고 했고, 인간은 천지의 위형(委形)으로 생각해 왔기에 왕과 자연현상과의 관계는 밀접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경덕왕 때 천재지변이 자주 발생했다는 것은 흉조였다. 엘리아데는 지상의 것과 천상의 것은 상응한다고 했다.¹⁸⁾ 『회남자』(淮南子) 남명훈여적(覽冥訓餘滴)에는 “천지와 사람의 신기가 서로 감응을 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이, 신라인은 천상과 지상의 현상이 서로 수수·대응 관계가 이뤄지는 것으로 생각했다.

경덕왕 15년 2월에 상대등 김사인(金思仁)이 매년 재이가 발생함을 보고 상소해 시정득실(時政得失)을 거론한 것은 자연현상과 인사와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경덕왕이 자연재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시(中侍)의 교체를 네 번이나 단행한 것은 자연현상

18) M. Eliade, *The Myth of the Eternal Return*, Princeton Univ. Press, 1971, pp.12~13

과 인사와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경덕왕 때에 일어난 천재지변은 불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법을 잃은 현상과 너무나 상응하는 면모이다. 이에 경덕왕 때에 일어난 자연현상과 사회상을 조명하기 위해 『금광명경』(金光明經)을 인용해 보기로 한다.

부처님이시여! 만일 어떤 임금의 이 경전에 대해 싫은 마음을 내 듣기를 좋아하지 않거나 공경 공양하지 않으며 소중히 여기지 않고 찬탄하지 않거나 ... 부처님이시여! ... 나쁜 병이 많이 유행..., 두 개의 해가 한꺼번에 뜨고 일식 월식이 잦으며 검고 흰 무지개가 상스럽지 않을 징조를 나타내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큰 소리를 내며 ... 다른 지방의 적들이 쳐들어와 약탈해 가서, 백성들이 한량없는 고통을 받게 돼 그 나라 안에는 조금도 즐거운 데가 없게 되나이다.¹⁹⁾

위의 『금광명경』은 경덕왕의 시대상과 너무나 다양하게 부합돼 왕의 실정의 단면상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오악산신이 궁정에 나타났다는 것은 경덕왕이 불경의 교리대로 정사를 펴지 않은 업과로 인해 장차 있을 국난을 알려주기 위한 암시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다. 경덕왕은 재위시 기록에 의하면 불경은 물론 보살계(菩薩戒)를 받았고 공양을 베풀기도 했다. 또 영여(迎如) 등을 왕사(王師) 또는 국사(國師)로 봉하고 사찰을 여러 곳에 창건 등으로 미뤄 불심이 돈독했다. 까닭에 왕은 불경 중 『금광명경』만이 아닌 안민 유형의 불경이면 국난에 처했던 관계로 『인왕호국반야바라밀다경』(仁王護國般若波羅蜜經)도 가까이 하고 참고했을 것으로 믿어 인용해 보기로 한다.

만약 나라가 어지러워지려 하면 먼저 귀신이 나타나는 까닭으로 먼저 어지러워지니, 귀신이 어지러운 까닭에 곧 만인이 어수선하고 도적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삶을 잃게 된다. 국왕·태자·왕자·백관이 함께 서로 시비를 행하고 천지가 괴이해 28수가 때를 잃고 법도를 잃으며 큰불·큰물·큰바람 등이 일어나게 된다.²⁰⁾

19) 『金光明經』, 第2卷 6 四天王品

이 사료는 대표적인 호국 불경인 『인왕반야바라밀경』에 수록돼 있는 「호국품(護國品)」 내용이다. 이 불경은 여러 명칭이 전해지고 그 중에 「호국품」은 여래가 국왕을 향하여 국토를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를 지킬 것을 당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 방법의 실행은 각각 100개의 불상, 보살상, 나한상, 법사. 등, 향, 꽃을 공양하면서, 하루에 두 번 경을 강독하고 공덕을 베푸는 수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불심이 깊지 않으면 수행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경덕왕은 착실한 불자이면서도 교리를 맹목적으로 신봉해 곳곳에 대규모 불사(佛事)에만 힘써 백성에게 과중한 세액을 부담케 해 민생을 앓을 파탄케 했다. 특히 경덕왕 때 불사 창건에 과중한 세액부담은 그의 태자 혜공왕 때에도 그 후유증(後遺症)의 부작용으로 민심의 이반(離反)돼 모반사건이 다섯 차례나 발생했다.²¹⁾ 이는 다름 아닌 왕이 연소하고 왕다운 정치를 베풀지 않은 원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안민가」와 자연재이와 『금광명경』과 『인왕호국반야바라밀다경』의 상응관계는 밀접해, 8세기 신라 35대 경덕왕(재위 742~765). 생존연대: ?~765년) 36대 혜공왕(재위 765~780)의 사회상을 신라를 살피는데 도움이 돼 인용했음을 밝힌다.

2. 「안민가」의 미래의식

「안민가」는 충담이 경덕왕의 정사를 비안민적으로 다스려 왕을 직간하기 위해 지은 노래이다. 경덕왕은 전제왕권 강화로 신화와 백성간의 갈등이 야기됐고, 여기에 자연재이와 성적 불구 등 건잡을 수 없는 심적

20)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 下, 護國品 5. “若國欲亂, 鬼神先亂, 鬼神亂故, 卽萬人亂, 當有賊起百姓 喪亡. 國王·天子·王子·百官互相是非, 天地變怪日月衆星, 失時失度, 大火大水及大風等. 是諸難起, 皆 應受持, 講說此般若波羅蜜多, 若於是經, 受持讀誦, 一切所求官位富饒, 男女慧解行來隨意, 人天果報, 皆得滿足, 疾疫厄難, 卽得除愈, 杻械枷鎖檢繫其身, 皆得解脫, 破四重戒, 作五逆罪, 及毀諸戒無量過 咎, 悉得消滅. 不空.”

21)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 第9 36, 惠恭王 條.

인 불안이 야기돼 이를 부처의 가호로 해결될 것이라 과신해 독실한 불교신자가 됐다.

경덕왕의 다스림은 한말로써 『논어』(論語)의 “군불군(君不君), 신불신(臣不臣), 부불부(父不父)”와 같이 당대상이 잘못돼도 시정하지 않고 불교교리로 정사를 내달릴 정도로 행했다. 왕이 왕통을 잇기 위해 무리한 불사창건의 사업을 벌인 것은 왕인 위정자로서 민생문제를 전연 돌보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따른다. 충담이 「안민가」에서 왕이 왕답지 않게 백성을 돌보지 않아 왕을 아버지로 비유했다. 가정에서 지아버가 가장으로서 자녀를 돌보야 원만한 가정형태가 이뤄지는 거와 같이 왕이 백성을 돌보지 않으면 국정운용은 곧장 실정돼 풍지 박산으로 해체되고 만다. 제가(齊家)을 하지 못하는 가장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니, 그 헤어짐은 너무나 슬프고 가슴이 아플 것이다. 하물며 일개의 가정도 가장이 제가를 못하면 파산지경으로 되는데 한 나라의 임금이 치국을 못하면 나라 또한 망하게 될 것은 밤중에 불을 보듯이 너무나 환한 일이다.

충담이 왕에게 노래로써 충간한 것은 현실적인 당연한 문제였고 유·불사상을 근간으로 한 것이라도 관념적인 전제가 아니고, 사회학적 입장에서 고쳐 나가야 한다는 미래의식의 비판정신이 잘 노정돼 있다.

「안민가」의 미래지향성은 유·불교의 내용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불교는 자비심으로 선근을 심어야 불국토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니, 「안민가」에서도 그 내용이 짙게 풍긴다. 안민가 제1단에서 임금은 가장의 존엄적인 존재인 아버지로, 신은 자녀를 사랑스런 어미와 같이 양육하는 것과 같이 대하면 백성은 그 공덕을 모를 리 없다. 상하공조 체계는 재가(齊家)로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은 점진적으로 사회로 나라로 이어져 백성은 안심하고 각자 생업에 종사하게 된다. 이는 「안민가」 제2단에서 위정자가 백성의 민생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백성을 돌보며 다스리면 백성들 또한 위정자의 선정의 치국을 다 알게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상하 민 모두는 일치단결의 결속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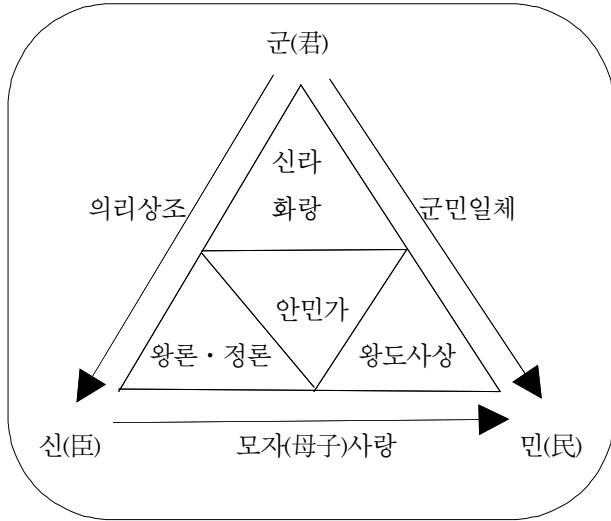
시켜 복지국가를 세우게 된다. 제3단에서 군신민이 다 각각 본분을 지키고 살아가면 나라 안이 태평해 진다는 것은 대학(大學)8조목(八條目) ① 격물(格物)→②치지(致知)→③성의(誠意)→④정심(正心)→⑤수신(修身)→⑥제가(齊家)→⑦치국(治國)→⑧평천하(平天下)가 이뤄져 태평성대로 화평무드가 될 것은 당연지사다. 유교의 평천하의 이상은 불국토건설과 다름없는 것이다. 충담사는 유·불교에 치우치지 않고 우국충정의 화랑 출신인 국선지도(國仙之徒)인 까닭에 당시 시대상을 구원하기 위해 경덕왕에게 「안민가」를 지어 바친 것이다.

「안민가」는 충담이 불교에 치우쳐 이를 제대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 불교의 왕론품(王論品)·정론품(正論品)과 유교의 왕도사상을 화랑정신으로 승화시켜 지은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까닭에 「안민가」는 충담이 경덕왕을 깨우치기 위해 지은 것이니, 이는 문학이 교훈적인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이 때²²⁾ 왕에게 불교일방이 아닌 유불교의 좋은 점을 대해 백성을 사랑하는 의식으로 연민사상을 고취시킨 것이다. 충담이 「안민가」에서 유불사상을 담은 것은 당시대적 배경이 호국적·안민적 요소가 필연적으로 요구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당대 상황은 상하관계가 질서의식이 결여했다. 군신민은 천지인의 수직관계를 모범한 것이기에 「안민가」는 당대상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성을 나타낸 것이다. 「안민가」의 천지인을 모범한 군신민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안민가」는 충담의 고결한 정신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위정자는 물론 피치자에게도 각성시키는 역할을 됐다. 안민가는 찬기파랑가와 같이 당시에 절실한 문제를 다뤘던 것으로 공명 공감 하는 바가 돼 신라인들이 애창했다고 본다. 「안민가」는 경덕왕 당시에 군신민의 비안민적인 상황을 “군군(君君) 신신(臣臣) 부부(父子) 자자(子子)”로 기강을 확립해 놓은 것은 그 시대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한 것이다. 이는 “문학은 그자체로서 고립돼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산물이고 사회의 반영이므로 그 이해

22) David Daiches, *Critical Approaches to Literature*, London, 1967, pp.10~11.

는 사회의식에서 이뤄져야 한다.”²³⁾는 것을 수증해 볼 필요가 있다.



「안민가」는 위정자가 백성을 근본으로 하고, 위정자답게 치국해야 되는 것을 충담이 왕에게 권고한 것이니, 미래지향적인 노래인 것이다.

국가의 안위문제는 위정자의 지도능력 역량에 달려 있는 것이니,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북분단의 통일도 다른 분단국의 예와 같이 조화로써 결집돼야 할 것이다. 신라는 「안민가」의 가의와 같은 내용을 군신민이 다 함께 합심해 삼국을 통일한 원동력이 됐다. 신라의 삼국통일의 위업은 어찌 보면 오늘의 남북의 통일보다 쉽지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장에서 155마일의 남북한의 분계선을 철거해 남북이 하나로 통일하는 의도에서 시조의 제목을 <통일냄새>로 지어보기로 한다.

산울림에 풀잎냄새/ 천년의 빗장 풀고/ 풀벌레 궁궐 짓는/ 신화의 땅이 속삭일 때.
 잠자던/ 태극나방도 힘줄 뽑아/ 하얀 빛니/ 남북한 이념차이/ 정갈히 머리 빗고,
 피고 지는 꽃 잔 속에/ 꿈을 여는 웃음소리/ 동그란/ 양지쪽엔 무지개/ 방향芳

23) 조동일, 『우리문학과 만남』, 흥성사, 1981, 275쪽.

춤이 가득.²⁴⁾

「안민가」는 위정자가 우선 나라를 잘 다스려야 백성도 편히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니, 8세기인 신라사회뿐만 아니라 오늘에도 마찬가지로 상황이라 보니, 이 노래는 위정자의 치국의 전형이 담긴 미래지향적 의식이 담겨진 것이다. 마치 이는 천지가 음양조화를 이루는 데서 만물이 만물다워지는 것과 같이 군신민이 화평하게 살아가는 활력소를 불어 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²⁵⁾ 때문에 「안민가」는 유불교·화랑의 사상이 조화됨이 담겨진 오늘의 의의를 지니는 노래라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안민가」는 비안민적 풍토에서 탄생됐다. 8세기 경덕왕의 시대상은 왕당파와 반왕당파로 갈리어 파벌 싸움을 일삼게 된 요인을 왕이 조성한 것이다.

충담사는 유불사상과 함께 화랑출신이었기에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왕의 심기를 거슬리게 충간하는 고승이었다. 충담이 「안민가」에서 백성을 어린아이와 같이 보살피면 나라가 태평하게 된다고 충성어린 직간을 했던 바가 된다. 왕자신도 충담사에 충간(忠諫)에 마음이 편치는 안했겠지만 너무나 심중에 와 닿아 감동을 받아 왕사(王師)를 봉하고자 했던 것이다. 충담사는 워낙 강직한 성벽의 승려이라 왕사도 사양했으니, 속승과는 격을 달리하는 스님이었다. 왕은 당대 착실한 불교신자였지만 유교의 왕도사상과 불경의 왕론품(王論品)과 정론품(正論品)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 결국 경덕왕은 유불사상과 화랑정신이 가의에서 풍겨짐에도 경덕왕이 불교교리에 집착해 왕권강화로 인해 백상을 돌보지 않

24) 윤경수, 『부산외대신문』, 234호, 1999년 6월4일(화) 문화 8쪽.

25) 윤경수, 「2. 현실인식과 미래지향성 안민가 생성동기와 치국관적 고찰」, 『항가·여요의 현대성연구』, 집문당, 1993, 352~353쪽.

아 부작용이 도출돼 결국 태종무열왕계의 왕계도도 잇지 못하고 단절되는 결과를 자아냈다.

충담사가 「안민가」의 가의를 계군가(戒君歌) 식의 내용으로 지은 근본 목적은 왕이 치국의 방도로써 힘쓸 것을 지은 것이다. 따라서 「안민가」는 위정자는 백성을 근본을 생각하고 위정자답게 치국해야 되는 것을 왕에게 권고한 노래이다.

「안민가」는 충담사의 위국 충정으로 지은 노래이기에 8세기 당시만이 아닌 현실성과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띤 가요이다. 따라서 「안민가」는 오늘날만이 아닌 미래에도 위정자를 각성케 하는 치국관·정치사상을 지니는 문학사적인 의의를 지니는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삼국유사』 『삼국사기』 『淮南子』 『金光明經』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
양주동, 『신증고가연구』, 일조각, 1965.
양주동, 「논어와 국문학」, 『논어』, 현암사 1966.
김운학, 『신라불교문학연구』, 현암사, 1977.
임기중,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二友出版社, 1981.
조동일, 『우리문학과 만남』, 흥성사, 1981.
금기창, 『한국시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2.
최 철, 『향가의 문학적 연구』, 새문사, 1985.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5.
김승찬, 『한국상고문학론』, 새문사, 1987.
이도흠, 「안민가와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화엄사상」, 『畿甸語文學』, 3 수원
대학국어국문학회, 1988.
윤영옥, 신라가요의 연구 형설출판사, 1991.
변종현, 「안민가 황폐강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향가문학연구』, 일지사, 1993.
尹敬洙, 『鄉歌·麗謠의 現代性研究』, 集文堂, 1993.
서재극, 『증보 신라향가의 어휘 연구』, 형설출판사, 1995.
김완진, 『향가해독법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윤경수, 『부산외대신문』, 234호, 1999.
신영명, 찬기파랑가의 상징체계와 경덕왕대 정치사, 『국제어문』 43, 국제
어문학회, 2008.
황선엽, 「안민가해독을 위한 새로운 시도」 『한국문화』, 42, 서울대 규장각 한
국학연구원, 2008.
신영명, 「안민가의 정치사상」, 『우리문학 연구』 제31집, 우리문학회, 2010.
서영교, 「安民歌」 창작의 시대적 배경」 『우리文學研究』, 제33집, 우리문학
회, 2011.
David Daiches, Critical Approaches to Literature, London, 1967.
M. Eliade, The Mith of the Eternal Return, Princeton Univ. Press, 1971.

Abstract

*Thoughts of Governance and Politics Reflected in Amminga - Focuses on
Confucian-Buddhist and Hwarang Thoughts* / Yun Gyeong-soo

Amminga is a Hang'ga written by Chungdamsa during the 24th reign year(745) of King Gyeongdeok of Shilla. During his reign, there were many natural disasters and among them, the Five Gods of Hell appeared. Appearance of the Silla protecting gods was the symbol and prediction of serious crisis.

To overcome this crisis, King Gyeongdeok visited a Buddhist monk Yeongbokseung at the pavilion of Guijeongmun and he met Chungdam at this location. The king requested Chungdam to write *Amminga* to comfort the people suffering from the crisis to restore government affairs since the king new about his previous writing of *Changjiparang'ga*. To overcome the crisis, Cheongdam wrote *Amminga* including the thought of Hwarang without over-emphasizing Confucianism-Buddhism.

Amminga points out the problems of the government and solutions to overcome the crisis, therefore, the king tried to hire Chungdam as a *maître du roi*. The king hated his staffs providing positive advices and policies without criticism. Chungdam criticised the king's faults and advised him to rule the kingdom with Confucian-Buddhist thought with traditional Hwarang thought. This is why the king saw him as a high level monk with patriotism and loyalty.

At the end of King Gyeongdeok, Silla court suffered from the competition between pro-king faction and anti-king faction. *Amminga* criticised the king's trends of political and governance thoughts without concerning the people while taking a middle ground. However, the king failed to clear the corruption and as a result, at the time of his son King Hyegong, the anti-king faction took over the court and the royal family lost the control of the kingship.

Amminga is an old literature of eighth century. Still, Cheongdamsa's *Amminga* reflected the Silla's situation of the crisis. It provided the guidelines for the government

based on Silla's Hwarang thought as a high level Buddhist monk. This is the literary value of the *Amminga* for today and future political leaders.

Key words: Chungdansa, King Gyeongdeok, Pro-king Faction, Confucian-Buddhism-Hwarang Thought, Eighth Century Silla.